

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 **2025년 2분기**
소비자위해정보 동향 분석

2025. 8.

»» 목 차

I. 일반 현황	1
II. 품목별 현황	3
III. 장소별 현황	7
IV. 위험·위해원인별 현황	9
V. 피해정도별 현황	11
VI. 인구통계학적 현황	15
VII. 특이 사례	17

✓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 :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

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, 52개 소방서,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피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- * '25. 7. 28. CISS 조회 기준이며, 데이터 가공처리 기한 내 수치 변동 가능
- *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.
- * '25년 2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분석은 전년 동기를 기준으로 분석함.

I 일반 현황

1. 분기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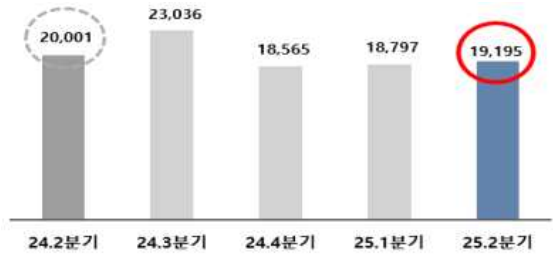
-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2025년 2분기 피해정보는 총 19,195건으로 전년 동기(2024년 2분기) 20,001건 대비 4.0%(806건) 감소함.

[분기별 현황]

단위 : 건, %

구분	2024년 2분기	2025년 2분기	증감률(전년 동기 대비)
접수 건수	20,001	19,195	△ 4.0

[분기별 접수 추이]



출처 :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

2. 수집채널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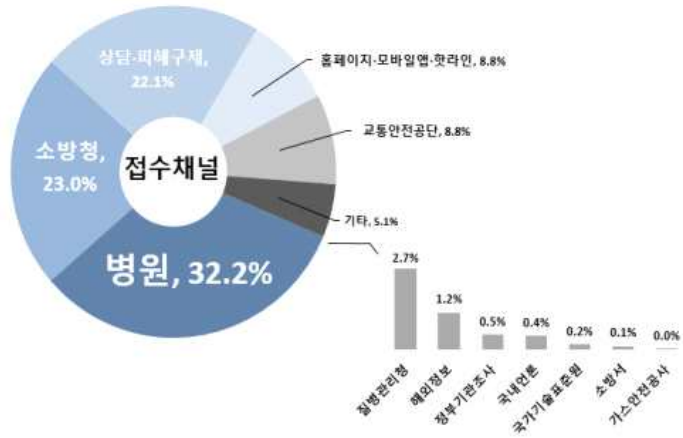
- 피해정보 접수 채널 중 병원으로부터 접수된 피해정보는 6,185건으로 2분기 접수 건의 32.2%를 차지하였으며, 전년 동기(7,626건) 대비 18.9% 감소함.
- 상담·피해구제를 통한 접수는 4,227건(22.1%)으로 전년 동기(3,891건) 대비 8.6% 증가함.
- 소비자가 '홈페이지·모바일앱·핫라인'을 이용하여 직접 제공한 피해정보는 1,697건(8.8%)이며, 전년 동기(1,065건) 대비 59.3% 증가함.
- 피해정보 연계기관별로는 '소방청' 4,406건(23.0%), '교통안전공단' 1,685건(8.8%), '질병관리청' 523건(2.7%), '국가기술표준원' 30건(0.2%)이 접수됨.

[접수채널별 현황]

단위 : 건, (%)

구분		2024년 2분기 건수(비율)	2025년 2분기 건수(비율)	증감률
위해정보 제출기관	병원	7,626(38.1)	6,185(32.2)	△ 18.9
	소방서	2(0.0)	19(0.1)	850.0
	가스안전공사	-	3(0.0)	-
		7,628(38.1)	6,207(32.3)	△ 18.6
연계기관	소방청	5,696(28.5)	4,406(23.0)	△ 22.6
	교통안전공단	1,280(6.4)	1,685(8.8)	31.6
	질병관리청	-	523(2.7)	-
	국가기술표준원	23(0.1)	30(0.2)	30.4
		6,999(35.0)	6,644(34.7)	△ 5.1
소비자 직접 신고	상담·피해구제	3,891(19.5)	4,227(22.1)	8.6
	홈페이지· 모바일앱·핫라인	1,065(5.3)	1,697(8.8)	59.3
		4,956(24.8)	5,924(30.9)	19.5
해외정보		413(2.1)	238(1.2)	△ 42.4
국내언론		5(0.0)	87(0.4)	1,640.0
정부기관조사		-	95(0.5)	-
총계		20,001(100.0)	19,195(100.0)	△ 4.0

[접수채널별 현황]



출처 :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

Ⅱ 품목별 현황

1. 총 현황

□ 품목 대분류별 접수 건수는 '가공식품'이 2,713건(14.1%)으로 가장 많았고, '자동차 및 관련 용품' 2,631건(13.7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○ '애완 동·식물 및 용품'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61.4% 증가했고, 주로 분양받은 동물의 질병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배상 관련 접수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[품목별(대분류) 현황]

단위 : 건, %

품목(대분류)	2024년 2분기		2025년 2분기		증감률
	건수	비율	건수	비율	
가공식품	2,458	15.7	2,713	14.1	10.4
자동차 및 관련 용품	2,129	10.7	2,631	13.7	23.6
건축/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	3,524	17.6	2,583	13.5	△26.7
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	2,675	13.4	2,582	13.5	△3.5
스포츠 및 취미용품	2,203	11.0	1,790	9.3	△18.7
가구 및 가구설비	1,963	9.8	1,506	7.8	△23.3
건물, 시설 및 서비스	1,075	5.4	1,019	5.3	△5.2
의약(외)품 및 의료용구	989	4.9	999	5.2	1.0
조명기구 및 전기 부품&용품	376	1.9	556	2.9	47.9
화장품 및 화장용품	181	0.9	409	2.1	126.0
완구 및 게임용품	606	3.0	383	2.0	△36.8
생활용품	321	1.6	338	1.8	5.3
의류, 신발, 가방, 보석 및 시계	322	1.6	300	1.6	△6.8
주방기기 및 용품	323	1.6	287	1.5	△11.1
축산·수산물 식품	169	0.8	209	1.1	23.7
연료 및 전지	98	0.5	166	0.9	69.4
식물 식품	191	1.0	165	0.9	△13.6
농·임·어업용 기계 및 관련용품	276	1.4	163	0.8	△40.9
애완 동·식물 및 용품	44	0.2	115	0.6	161.4
도서, 음반 및 문구용품	118	0.6	88	0.5	△25.4
화재, 안전 및 보안 장비	59	0.3	60	0.3	1.7
기타 장비 및 제품	101	0.5	133	0.7	31.7
총계	20,001	100.0	19,195	100.0	△4.0

2. 위해다발품목 현황

□ 소분류 기준 위해다발품목은 '석재 또는 타일바닥재'가 1,330건(6.9%)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, '국내 승용차-중형' 777건(4.0%), '침대' 668건(3.5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[상위 10개 위해다발품목(소분류) 현황]

단위 : 건, (%)

순번	2024년 2분기		2025년 2분기		주요 위해사례
	품목(소분류)	건수(비율)	품목(소분류)	건수(비율)	
1	석재 또는 타일바닥재	1,816(9.1)	석재 또는 타일바닥재	1,330(6.9)	•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번가에 우측 옆구리를 부딪혀 발생한 늑골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음.
2	침대	855(4.3)	국내 승용차-중형	777(4.0)	• 차량 추돌 사고 시 에어백이 미작동하여 신고 문의함.
3	일반자전거	725(3.6)	침대	668(3.5)	•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발생한 뇌출혈로 병원 진료를 받음.
4	비닐바닥재	610(3.0)	일반자전거	620(3.2)	• 자전거를 타다 체인에 우산이 끼어 넘어지면서 발생한 무릎 찰과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.
5	국내 승용차-중형	486(2.4)	국내 승용차-대형	529(2.8)	• 에어컨 소음 발생 및 작동 불량으로 신고 문의함.
6	목재마루재	428(2.1)	비닐바닥재	472(2.5)	• 칫솔을 문 채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유아용 미끄럼틀에 부딪혀 발생한 입안 열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.
7	어린이자전거	400(2.0)	기타 영양보충제품	426(2.2)	• 영양제 섭취 후 피부발진 및 호흡곤란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.
8	국내 승용차-대형	368(1.8)	어린이자전거	401(2.1)	•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바퀴에 옷과 다리가 끼여 오른쪽 발목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음.
9	키편드	316(1.6)	목재마루재	370(1.9)	• 거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치아가 부러져 병원 진료를 받음.
10	수입 승용차-대형	274(1.4)	국내 승용차-소형	285(1.5)	• 차량에서 누유된 오일이 과열된 엔진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함.

3. 증가율 상위 품목 현황

- 전년 동기 대비 위해정보 증가율 상위 품목은 ‘바디용 기초화장품’이 3,600.0%로 가장 높았고, ‘기타 애완동물’ 1,033.3%, ‘가정용 전기레인지’ 644.4%, ‘로션 크림’ 550.0%, ‘자외선 차단제’ 400.0%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※ ‘바디용 기초화장품’, ‘로션 크림’의 경우 해외 리콜 및 판매 차단된 제품의 국내 재유통 등으로 관련 제보가 증가함

[증가율 상위 품목* 현황]

단위 : 건, %

순번	품목(소분류)	전수		증가율	주요 위해사례
		2024년 2분기	2025년 2분기		
1	바디용 기초화장품	1	37	3,600.0	•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어 해외 리콜 및 판매 차단된 바디용 기초화장품이 국내에 재유통되어 제보함.
2	기타 애완동물	3	34	1,033.3	• 분양받은 동물의 건강상태가 불량하여 폐사한 데 따라 환급을 문의함.
3	가정용 전기레인지	9	67	644.4	• 전기레인지 상판에 태백를 올리다가 부주의로 다이얼을 건드리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함.
4	로션, 크림	8	52	550.0	• 로션을 바른 후 안구 충혈 및 가려움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.
5	자외선 차단제	7	35	400.0	• 사용 중이던 자외선 차단제의 환경호르몬 초과 검출에 따라 환급을 문의함.
6	헬스용 사이클	11	43	290.9	• 헬스용 사이클을 타다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여 병원 진료를 받음.
7	화물차-소형	11	43	290.9	• 차량 주행 중 계기판에 엔진 브레이크 관련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가속 불량이 발생하여 신고 문의함.
8	일반 다이어트 식품	26	88	238.5	• 다이어트 식품 섭취 후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.
9	기타 건강식품	29	88	203.4	• 눈 영양제 복용 후 안압이 상승하는 부작용 발생하여 반품을 문의함.
10	국내 승용차-대형	198	529	167.2	• 차량 주행 중 엔진 결함으로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 데 따라 신고 문의함.

※ '25년 2분기 위해정보가 30건 이상인 품목 중,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높은 품목으로 선정함.

4. 감소율 상위 품목 현황

- 전년 동기 대비 위해정보 감소율 상위 품목은 ‘키보드’가 60.8%로 가장 높았으며, ‘사다리’(△55.2%), ‘음식물 처리기’(△52.5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- ‘키보드’의 경우 미끄러짐·넘어짐 사고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.

[감소율 상위 품목* 현황]

단위 : 건, %

순번	품목(소분류)	전수		감소율
		2024년 2분기	2025년 2분기	
1	키보드	316	124	△60.8
2	사다리	134	60	△55.2
3	음식물 처리기	223	106	△52.5
4	놀이터용 미끄럼틀	139	67	△51.8
5	놀이터용 철봉	70	34	△51.4
6	롤러스케이트 또는 롤러블레이드	74	36	△51.4
7	문틀	155	77	△50.3
8	놀이터용 그네	107	56	△47.7
9	구슬	57	30	△47.4
10	소파	236	126	△46.6

※ '25년 2분기 위해정보가 30건 이상인 품목 중,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이 높은 품목으로 선정함.

Ⅲ 장소별 현황

1. 총 현황

- 위해발생장소는 대분류 기준 '주택'이 8,631건(45.0%)으로 가장 많았고, '도로 및 인도' 1,406건(7.3%), '숙박 및 음식점' 885건(4.6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장소는 '기타 상업시설'이 44.2%로, 미용실에서 사술 후 머리카락 및 피부가 손상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.

[위해 발생 장소별(대분류) 현황]

단위 : 건, %

장소(대분류)	2024년 2분기		2025년 2분기		증감률
	건수	비율	건수	비율	
주택	10,033	50.1	8,631	45.0	△14.0
도로 및 인도	2,915	14.6	1,406	7.3	△51.8
숙박 및 음식점	883	4.4	885	4.6	0.2
여가, 문화 및 놀이시설	434	2.2	345	1.8	△20.5
기타 상업시설*	215	1.1	310	1.6	44.2
교육시설	335	1.7	221	1.2	△34.0
스포츠/레저시설	280	1.4	208	1.1	△25.7
의료서비스시설	236	1.2	208	1.1	△11.9
교통시설	230	1.1	205	1.1	△10.9
복지 및 노인요양시설	178	0.9	150	0.8	△15.7
쇼핑시설	78	0.4	98	0.5	25.6
농·수·축산업 지역	159	0.8	84	0.4	△47.2
자연 및 관련시설	43	0.2	25	0.1	△41.9
종교 및 문화시설	34	0.2	24	0.1	△29.4
공공시설	18	0.1	7	0.0	△61.1
산업 및 건설지역	9	0.0	5	0.0	△44.4
기타**	3,921	19.6	6,383	33.3	62.8
총계	20,001	100.0	19,195	100.0	△4.0

* 주유소, 세차장, 편의점, 제과점, 이·미용실 등

** 해외정보 등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소 및 확인되지 않은 경우

2. 다발장소 현황

- 소분류 기준 위해다발장소는 '상세불명의 주택'이 4,198건(21.9%)으로 가장 많았고, '아파트' 3,255건(17.0%), '상세불명의 도로 및 인도' 1,000건(5.2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[상위 10개 위해 다발장소(소분류) 현황]

단위 : 건, (%)

순번	2024년 2분기		2025년 2분기		주요 위해사례
	장소(소분류)	건수(비율)	장소(소분류)	건수(비율)	
1	상세불명의 주택	5,052(25.3)	상세불명의 주택	4,198(21.9)	• 창문 방충망을 고치다가 4M 높이에서 떨어져 다리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음.
2	아파트	3,840(19.2)	아파트	3,255(17.0)	• 방에서 안정을 쓴 채로 넘어지면서 파손된 안경 파편에 의해 눈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
3	상세불명의 도로 및 인도	2,555(12.8)	상세불명의 도로 및 인도	1,000(5.2)	• 자전거를 타다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이마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
4	카페 및 음식점	808(4.0)	카페 및 음식점	800(4.2)	• 도넛을 먹은 후 알레르기로 인해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.
5	다세대주택	546(2.7)	다세대주택	548(2.9)	• T형 말티탭에 보일러, 세탁기, 건조기를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 중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함.
6	단독주택	426(2.1)	단독주택	493(2.6)	• 화장실에서 락스로 청소한 후 오실 구조가 지속되어 병원 진료를 받음.
7	종합병원	145(0.7)	목욕탕	135(0.7)	•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좌측 후두부를 부딪혀 뇌진탕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.
8	자전거도로	144(0.7)	고속도로/ 자동차전용도로	132(0.7)	• 택시에서 내리다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이 골절되어 병원 진료를 받음.
9	초등학교	130(0.6)	자전거도로	123(0.6)	•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광대뼈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음.
10	목욕탕	120(0.6)	종합병원	110(0.6)	• CT촬영을 위해 조영제 투여 후 심장마비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.

IV 위험·위해원인별 현황

1. 총 현황

- 대분류 기준 위험·위해 원인은 ‘물리적 충격’이 6,596건(34.4%)으로 가장 많았고, ‘제품 관련’ 5,228건(27.2%), ‘식품 및 이물질’ 3,147건(16.4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‘피부 관련’의 경우 ‘전기마사지기’ 사용 시 화상을 입은 사고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[위험·위해원인별(대분류) 현황]

단위 : 건, %

원인(대분류)	2024년 2분기		2025년 2분기		증감률
	건수	비율	건수	비율	
물리적 충격	9,045	45.2	6,596	34.4	△27.1
제품 관련	4,962	24.8	5,228	27.2	5.4
식품 및 이물질	2,990	14.9	3,147	16.4	5.3
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	1,211	6.1	1,547	8.1	27.7
화재·발연·과열·가스	781	3.9	1,100	5.7	40.8
의료기술 및 약물	500	2.5	455	2.4	△9.0
피부 관련	169	0.9	315	1.6	86.4
기타*	343	1.7	807	4.2	135.3
총계	20,001	100.0	19,195	100.0	△4.0

* 해외정보, 표시사항 미흡 등 분류되지 않는 기타 위험·위해의 경우

2. 다발 위험·위해원인 현황

- 소분류 기준 다발 위험·위해원인은 ‘미끄러짐·넘어짐’이 4,641건(24.2%)으로 가장 많았고, ‘기타 불량 및 고장’ 3,205건(16.7%), ‘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’ 2,412건(12.6%), ‘추락’ 1,313건(6.8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[상위 10개 위험·위해원인(소분류) 현황]

단위 : 건, (%)

순번	2024년 2분기		2025년 2분기		주요 위해사례
	원인(소분류)	건수(비율)	원인(소분류)	건수(비율)	
1	미끄러짐·넘어짐	6,241(31.2)	미끄러짐·넘어짐	4,641(24.2)	• 배란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세탁기에 부딪혀 눈썹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
2	기타 불량 및 고장	3,228(16.1)	기타 불량 및 고장	3,205(16.7)	• 여름철 정수기 얼음과 냉수 기능 작동이 불량한 데 따라 해지를 문의함.
3	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	2,251(11.3)	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	2,412(12.6)	• 영양제 섭취 후 경련 및 청색증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.
4	추락	1,902(9.5)	추락	1,313(6.8)	• 학교 운동장에 있는 그네를 타다가 뒤로 떨어져 발생한 낙진탕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.
5	기타 전기관련	737(3.7)	기능고장	1,069(5.6)	• 안마의자 일시정지 기능 오작동으로 발이 끼면서 골절되어 병원 진료를 받음.
6	기능고장	624(3.1)	기타 전기관련	984(5.1)	• 선풍기 콘센트를 연결하다가 양쪽 손이 감전되어 병원 진료를 받음.
7	과열·파손·꺾여짐	538(2.7)	기타 위험 및 위해내용	797(4.2)	• 냉동식품 개봉 중 드라이아이스가 파부에 닿아 손에 동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
8	에리함·마감처리 불량	399(2.0)	과열·파손·꺾여짐	468(2.4)	• 깨진 핸드폰 액정을 만지다가 손가락에 유리조각이 박혀 병원 진료를 받음.
9	부딪힘	385(1.9)	연료·액체 누수 등	378(2.0)	• 음식물처리기의 세척 모드 사용 시 누수가 발생하여 제보함.
10	약물 부작용	349(1.7)	과열	332(1.7)	• 거실에서 전동키보드 충전 중 배터리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함.

V 위해정도별 현황

1. 위해부위별 현황

- 대분류 기준 위해부위는 '머리 및 얼굴'이 3,605건(18.8%)으로 가장 많았고, '신체내부' 1,940건(10.1%), '둔부, 다리 및 발' 1,641건(8.6%), '팔 및 손' 1,177건(6.1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소분류 기준으로는 '머리 및 뇌(뇌막)'이 2,037건(10.6%)으로 가장 많았고, '신체내부-소화계통(식도,위장,대장 등)' 1,777건(9.3%), '둔부' 414건(2.3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[위해부위별(소분류) 현황]

단위 : 건, %

부위(대분류)	부위(소분류)	2024년 2분기		2025년 2분기		증감률
		건수	비율	건수	비율	
머리 및 얼굴 (3,605건, 18.8%)	머리 및 뇌(뇌막)	2,437	12.2	2,037	10.6	△16.4
	이마	473	2.4	309	1.6	△34.7
	눈 및 눈 주변 (눈썹 및 눈꺼풀)	449	2.2	288	1.5	△35.9
	입술, 혀	298	1.5	176	0.9	△40.9
	코	280	1.4	161	0.8	△42.5
	치아	163	0.8	118	0.6	△27.6
	턱	226	1.1	114	0.6	△49.6
	귀 및 고막	97	0.5	59	0.3	△39.2
	볼	63	0.3	47	0.2	△25.4
	잇몸 및 구강	77	0.4	41	0.2	△46.8
	안구	134	0.7	36	0.2	△73.1
	머리카락	4	0.0	14	0.1	250.0
	인중	24	0.1	14	0.1	△41.7
	기타 얼굴부위	234	1.2	191	1.1	△18.4
신체내부 (1,940건, 10.1%)	신체내부-소화계통 (식도, 위장, 대장 등)	1,612	8.1	1,777	9.3	10.2
	신체내부-호흡계통 (기도, 폐 등)	97	0.5	105	0.5	8.2
	신체내부-기타(혈관 및 장기 등)	56	0.3	58	0.3	3.6

부위(대분류)	부위(소분류)	2024년 2분기		2025년 2분기		증감률
		건수	비율	건수	비율	
둔부, 다리 및 발 (1,641건, 8.6%)	둔부	625	3.1	414	2.3	△33.8
	다리(무릎 위)	517	2.6	384	2.0	△25.7
	무릎	443	2.2	287	1.5	△35.2
	발목	244	1.2	192	1.0	△21.3
	다리 (무릎 아래, 무릎 및 발목 제외)	177	0.9	156	0.8	△11.9
	발	113	0.6	85	0.4	△24.8
	발가락	74	0.4	74	0.4	0.0
	생식기 주변 및 회음부	70	0.3	46	0.2	△34.3
	발톱	2	0.0	3	0.0	50.0
팔 및 손 (1,177건, 6.1%)	손가락	583	2.9	393	2.1	△32.6
	손목	315	1.6	219	1.1	△30.5
	팔 (아래부분, 팔꿈치 및 손목 제외)	229	1.1	157	0.8	△31.4
	손	195	1.0	156	0.8	△20.0
	팔꿈치	274	1.4	134	0.7	△51.1
	팔(위부분)	162	0.8	112	0.6	△30.9
	손톱	9	0.0	6	0.0	△33.3
몸통 (922건, 4.8%)	허리	572	2.9	541	2.8	△5.4
	흉부	289	1.4	246	1.3	△14.9
	등	67	0.3	52	0.3	△22.4
	옆구리	60	0.3	47	0.2	△21.7
	복부	51	0.3	36	0.2	△29.4
	목 및 어깨 (311건, 1.6%)	333	1.7	247	1.3	△25.8
기타 위해부위 (559건, 2.9%)	어깨(쇄골 포함)	81	0.4	64	0.3	△21.0
	전신 손상	580	2.9	484	2.5	△16.6
	위해부위 확인불가	68	0.3	67	0.4	△1.5
	상세미상의 위해부위	2	0.0	8	0.0	300.0
	해당없음(9,040건, 47.1%)	7,142	35.7	9,040	47.1	26.6
총계		20,001	100.0	19,195	100.0	△4.0

2. 위해증상별 현황

- 대분류 기준 위해증상은 ‘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’이 3,173건(16.6%)으로 가장 많았고, ‘뇌진탕 및 타박상’ 3,052건(15.9%), ‘신체내부 장기손상’ 1,545건(8.0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소분류 기준으로는 ‘타박상’이 2,518건(13.1%)으로 가장 많았고, ‘열상(찢어짐)’ 1,465건(7.6%), ‘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’ 1,334건(6.9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[위해증상별(소분류) 현황]

단위 : 건, %

증상(대분류)	증상(소분류)	2024년 2분기		2025년 2분기		증감률
		건수	비율	건수	비율	
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(3,173건, 16.6%)	열상(찢어짐)	2,448	12.3	1,465	7.6	△40.2
	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	612	3.1	453	2.4	△26.0
	찰과상	596	3.0	370	1.9	△37.9
	두드러기	316	1.6	238	1.2	△24.7
	피부염 또는 피부발진	219	1.1	211	1.1	△3.7
	출혈 및 혈종	243	1.2	187	1.0	△23.0
	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	29	0.1	96	0.5	231.0
	절상(베임)	68	0.3	51	0.3	△25.0
	가려움	33	0.2	49	0.3	48.5
	결막염 또는 안구손상	86	0.4	21	0.1	△75.6
	자상(절림)	20	0.1	18	0.1	△10.0
	박리(벗겨짐)	23	0.1	12	0.1	△47.8
	천공 및 관통상	7	0.0	2	0.0	△71.4
뇌진탕 및 타박상 (3,052건, 15.9%)	타박상	3,228	16.2	2,518	13.1	△22.0
	뇌진탕	569	2.8	534	2.8	△6.2

증상(대분류)	증상(소분류)	2024년 2분기		2025년 2분기		증감률
		건수	비율	건수	비율	
신체내부 장기손상 (1,545건, 8.0%)	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	1,133	5.7	1,334	6.9	17.7
	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	89	0.5	98	0.5	10.1
	신경계통 손상 및 통증	67	0.3	44	0.2	△34.3
	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	25	0.1	37	0.2	48.0
	심혈관계통 손상 및 통증	49	0.2	32	0.2	△34.7
근육, 뼈 및 인대 손상 (1,349건, 7.0%)	골절	1,095	5.5	1,042	5.4	△4.8
	탈구	401	2.0	134	0.7	△66.6
	염좌	121	0.6	116	0.6	△4.1
	파쇄(부서짐)	51	0.3	49	0.3	△3.9
	절단	25	0.1	8	0.0	△68.0
화상 (195건, 1.1%)	화상-열에 의한	159	0.8	111	0.6	△30.2
	화상-뜨거운 액체나 증기로 인한	85	0.4	57	0.3	△32.9
	화상-전기에 의한	7	0.0	11	0.1	57.1
	화상-화학물로 인한	13	0.1	10	0.1	△23.1
	화상-원인불명	3	0.0	6	0.0	100.0
전신손상 (45건, 0.2%)	중독(약물, 가스, 화학물질 등)	15	0.1	21	0.1	40.0
	식중독 (부패·변질 음식)	17	0.1	19	0.1	11.8
	전기충격 (감전사 포함)	10	0.0	3	0.0	△70.0
	산소결핍	1	0.0	2	0.0	100.0
기타 손상 (813건, 4.2%)	체내 위험 이물질	360	1.8	253	1.3	△29.7
	구토	217	1.1	182	0.9	△16.1
	설사	112	0.6	81	0.4	△27.7
	알레르기	96	0.5	77	0.4	△19.8
	어지러움, 이명, 메스꺼움	84	0.4	77	0.4	△8.3
	두통	81	0.4	74	0.4	△8.6
	오한, 발열	21	0.1	32	0.2	52.4
	동상	-	-	1	0.0	-
	상세미상의 위해증상	27	0.1	36	0.2	33.3
해당없음(9,023건, 47.0%)		7,140	35.7	9,023	47.0	26.4
총계		20,001	100.0	19,195	100.0	△4.0

VI 인구통계학적 현황

1. 연령대별 현황

- '연령대'는 '만60세 이상'이 3,827건(19.9%)으로 가장 많았고, '만10세 미만' 2,211건(11.5%), '40대' 1,758건(9.2%), '30대' 1,757건(9.2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[연령대별 현황]

단위 : 건, %

연령대	2024년 2분기		2025년 2분기		증감률
	건수	비율	건수	비율	
만10세 미만	3,419	17.1	2,211	11.5	△35.3
10대	1,260	6.3	985	5.1	△21.8
20대	944	4.7	855	4.4	△9.4
30대	1,537	7.7	1,757	9.2	14.3
40대	1,913	9.5	1,758	9.2	△8.1
50대	1,917	9.6	1,703	8.9	△11.2
만60세 이상	4,774	23.9	3,827	19.9	△19.8
미상*	4,237	21.2	6,099	31.8	43.9
총계	20,001	100.0	19,195	100.0	△4.0

* 위해자 연령을 알 수 없거나 국내 언론·해외정보 등 연령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접수된 경우

2. 성별 현황

- '남자' 8,000건(41.7%), '여자' 7,560건(39.4%)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음.

[성별 현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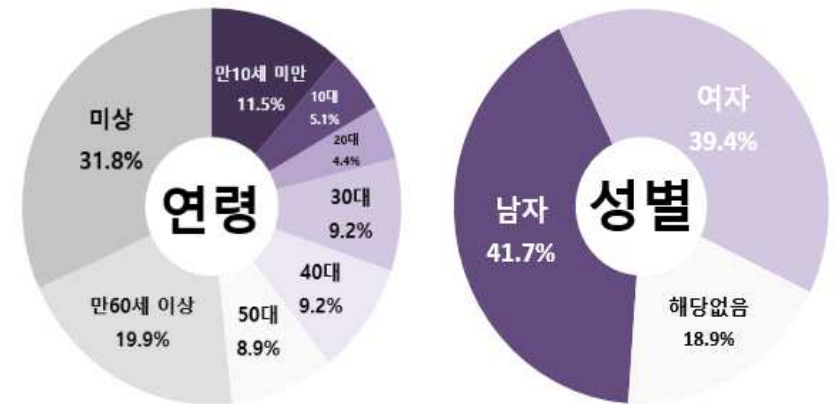
단위 : 건, %

성별	2024년 2분기		2025년 2분기		증감률
	건수	비율	건수	비율	
남자	9,122	45.6	8,000	41.7	△12.3
여자	8,634	43.2	7,560	39.4	△12.4
해당없음*	2,245	11.2	3,635	18.9	61.9
총계	20,001	100.0	19,195	100.0	△4.0

* 성별을 알 수 없거나 국내 언론·해외정보 등 성별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접수된 경우

[인구통계학적 현황]

단위 : %



출처 :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

VII 특이 사례

순번	품목	주요 위해내용
1	의료용 흡입기	(만0세, 미상) 영아가 의료용 아기 콧물 흡입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에 의해 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
2	기타 완구	(만7세, 여) 스트레스볼을 가지고 놀다 터지면서 흉부에 튄 물질에 의해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
3	과학실험도구	(만17세, 여) 학교에서 과학 실험 중 아닐린을 흡입한 후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.
4	금연보조제	(만29세, 남) 금연 클리닉에서 처방받은 니코틴 패치를 붙인 후 수면장애 및 어지럼증 등 부작용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.
5	외피용약	(만39세, 여) 파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강한 접착력으로 양쪽 팔에 멍이 들어 병원 진료를 받음.
6	우산	(만46세, 여) 녹슨 우산을 만진 후 손에 감각이상 및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.
7	가정용 전기주전자	(만59세, 여) 전기주전자 사용 중 손잡이가 떨어지면서 발등으로 뜨거운 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
8	가정용 전동칫솔	(만65세, 여) 구강세정기(워터픽)을 사용하고 난 후 입천장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.
9	기타 두발 염색용 화장품	(만75세, 여) 팩으로 된 염색약을 짜먹는 한약으로 오인하여 섭취 후 체내 이물질로 병원 진료를 받음.
10	버스정거장 및 버스여객서비스	(만80세, 여) 마을버스를 타려다 문이 닫히면서 뒤로 넘어져 팔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